

“화이자·모더나·얀센 모두 오미크론에 역부족”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등 새 연구결과...“추가접종해야 효과 복원”

미국에서 승인된 코로나19 백신 3종 모두 오미크론 변이에는 효과가 떨어지며, 추가접종(부스터샷)을 해야 보호 효과가 복원된다는 연구 결과가 14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과 하버드대학,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구진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얀센(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등 미국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상대로 오미크론 변이와 유사하게 조작된 가상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살폈다.

분석 결과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우 2회, 얀센 백신 1회를 맞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혈액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항체 중화 수준이 전혀 없거나 낮았다고 나타났다.

반면 최근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들의 혈액은 오미크론 변이에 강력한 중화반응을 보였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아직 동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이번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와 비교해 전염력이 2배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잘 전염된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라도 오미크론 변이에 면역 효과가 떨어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것이다.

앞서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진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회 접종했을 때는 오미크론 변이를 상대로 충분한 중화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바이오엔테크와 화이자 역시 2차례 백신 접종만으로는 오미크론을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현저하게 낮게 형성됐다면서 3차례 백신을 맞아야 오미크론 변이가 중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주 밝힌 바 있다. 모더나와 존슨앤드존슨은 오미크론에 대한 자사 백신의 효능을 연구한 결과를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중인 영국의 런던 시민들이 14일(현지시간) 런던 세인트 토머스 병원 코로나19 접종소에서 백신을 맞기 위해 인근의 웨스트민스터 다리까지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도·납치’가석방 종료 OJ 심슨 완전 자유인

세기의 전처 살해사건 재판으로 유명한 전 미식 축구 스타 OJ 심슨(74)이 이후 저지른 강도·납치 범죄와 관련해 적용받던 가석방을 끝마치고 완전한 자유인이 됐다.

14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네바다주 경찰 대변인은 이날 1일 심슨의 가석방 기간이 끝났다고 밝혔다. 그는 2007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동료 5명과 함께 스포츠 기념품 중개상 2명을 총으로 위협하고 기념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최고 3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9년간 복역한 심슨은 2017년 10월 1일 네바다주 교정센터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라스베이거스의 외부인 출입제한 주거지에 살면서 트위터를 통해 미식축구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심슨은 이제 라스베이거스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미국 매체들의 인터뷰 요청에 당장 응하지 않았고 그의 변호인도 향후 계획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당초 심슨의 가석방 종료일은 내년 9월 29일이었으나 네바다주 가석방심의위원회는 그가 모범적으로 근신해온 점을 참작해 이 시점을 내년 2월 9일로 당겼다가 재차 줄였다.

1970년대 미국프로풋볼(NFL) 스타 선수로 그라운드를 뒹구었던 심슨은 1994년 전처 니콜 브라운과 그의 연인 론 골드먼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나라로 떨어졌다. 그는 쏟아지는 물증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무죄를 주장했고 오랜 재판 끝에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 결과를 두고 큰 논란이 제기됐고 사건은 각종 영화와 다큐멘터리 소재로 오랫동안 회자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민사재판에선 패소했다. /연합뉴스

리라화 폭락 터키에 글로벌 줍줍족

올들어 5만채 끌어담아

주택 구입에 외화 10조원 유입

이스탄불 30평 아파트 5천만원

터키 리라화가 사상 최저치로 폭락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진 부동산에 눈독을 들인 글로벌 ‘줍줍족’이 터키에 몰리고 있다고 로이터, dpa 통신이 보도했다.

14일(현지시간) 터키 통계청(TurkStat)에 따르면 지난 달 외국인의 터키 주택 매입 건수는 사상 최고치인 736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이란인이 터키 부동산을 가장 많이 취득했고, 이라크, 러시아, 독일 구입자가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외국인들은 터키에서 5만 채가 넘는 아파트를 사들였는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한 수준이다. 외국인 줍줍족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는 이스탄불이고, 지중해변의 휴양 도시인 안탈리아, 수도 앙카라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터키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것은 터키 리라화가 폭락해 달러 등 경화의 가치가 올라 과거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리라화는 사상 최저치인 1달러당 14.99리라까지 급락했다. 올해 초 1달러당 7리라 초중반에 거래되던 것을 고려하면 리라화 가치가 반 토막이 난 셈이다.

현지 부동산 사이트인 진가트에 따르면 현

재 이스탄불에서 아파트 100㎡의 평균가는 63만 리라(4만3867달러·약 5000만원)에 불과하다.

코누트데르 주택개발투자협회의 알탄 엘마스 회장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주택 매입으로 인한 외화 유입이 예상을 뛰어넘는 약 85억 달러(약 10조원)에 달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터키 경제 전문가들은 수출 촉진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리라화 가치가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고금리가 고물가를 유발한다는 생소한 주장을 펴며 경제학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밀어 붙이고 있다.

저금리로 인해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공식 인플레이션 수치가 20%를 상회하자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 현지인들도 주택 매입에 뛰어들어 터키 주택 시장은 전반적으로 활황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터키의 주택 거래량은 작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17만8814건에 달했다.

리라 가치 폭락으로 주변국의 쇼핑객도 터키로 몰려들고 있다고 dpa는 전했다.

불가리아 접경 도시인 에디르네에는 일상적인 쇼핑과 식사, 여행 등을 위해 방문한 불가리아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하지만 생활 물가가 뛰면서 이스탄불 등지에서 저렴한 빵을 살 수 있는 상점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선 등 상당수 터키인에게는 삶이 더 고단해지고 있다고 dpa는 지적했다. 터키야당은 실질 소비자 물가가 공식 통계의 2배가 넘게 치솟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인민은행, 예고대로 기준율 0.5%p 인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앞서 예고한 대로 15일 은행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1조2천억 위안(약 223조원)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지급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인하 후 중국 금융권의 평균 지급준율은 8.4%로 낮아진다.

앞서 지난 6일 인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은행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기 둔화 와중에 부동산 그룹 헝다(에버그란데)의 부채 위기가 폭발하자 지준율 인하에 나섰다.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를 단행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인민은행은 지난 7월 15일자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충격에 대응해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린 바 있다. 당시 지준율 인하는 작년 4월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연합뉴스



사상자 100여명 발생한 아이티 트럭 폭발사고 현장 14일(현지시간) 중미 아이티의 제2 도시 카프라이시앵에서 발생한 휘발유 수송 트럭 폭발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전소한 트럭 잔해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사고로 100명 넘는 사상자가 나왔다. /연합뉴스

유튜브 일시 먹통

1만5천건 신고 쇄도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에서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1만5천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웹사이트 접속 장애 감시 사이트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유튜브 서비스 불통이나 속도 저하를 호소하는 1만5천 건 이상의 신고가 제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튜브도 서비스상 일시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유튜브는 트위터를 통해 “일시적으로 접속 장애나 속도 저하 문제가 있었지만 20분 만에 해결했다”라고 안내했다. 웹 서비스리뷰 사이트인 ‘툴테스터’에 따르면 앞서 유튜브는 지난 12개월간 65건의 서비스 장애 사례를 겪었다.

앞서 7일에는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미국에서 대규모 장애를 일으키면서 아마존의 상품 배송과 디즈니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